

조선 사대부의 자아를 보는 눈

김 상 조*

1

본 발표는 조선 사대부들이 자아를 보는 태도에 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초 채택한 중국에 대한 사대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국가 관학으로 선택된 유학에 같이 들어온 화이론은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강화되고 스스로를 오랑캐로 비하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꼬리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논문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발표를 위한 요지에 불과하다. 앞으로 많은 수정과 보충을 통하여 한 편의 논문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2

조선을 건국하고 유학적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했던 유학자들은 유학적 교리를 조선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래의 사회 제도와 맞지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교수

않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조가 또 말하기를 “전일에 태종이 본국의 여자 옷을 모두 중국의 제도에 따르게 하려 하시기로 신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명나라 서울에 갔을 때에 켈리에 들어가 공자의 가묘를 보았는데 여복 한 화상이 본국과 다름이 없고 다만 머리 장식만이 달랐습니다.’ 하였더니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 습니다. 중국의 예법이라고 어찌 다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¹⁾

태종이 사회 전반의 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꾸려고 하자 허조가 머리 장식을 제외한 여인들의 복식이 이미 중국식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허조가 이 말을 한 의도다. 문맥만으로 파악을 한다면 허조는 태종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태종에게 한 말은 이미 거의 같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에게는 ‘중국의 예법이라고 어찌 다 따를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즉 태종에게 한 말의 참뜻은 예법을 무조건 중국식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태종이 사회 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구차한 방법을 가지고 입금을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것은 바로 유학의 현실적 적용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의 유학자들은 중국의 예법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²⁾

그러나 중국식이라고 다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식의 자주적인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고 점차 중국인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멀리 동쪽에 있어 중국에서 보기에 안남이나 교지와 다름이 없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화라고 말하는 것은 어

1) 『東閣雜記』 상, 『국역대동야승』 13, 민족문화추진회, 1982, 362면. 稱又曰 昔太宗欲本國女服 悉從華制 臣啓曰 嘗昔赴京過闕里 入見孔子家廟 見女服畫像 與本國無異 但首飾異耳 事竟不行 中國之禮 安可盡從乎

2) 이에 대해서는 마르티나 도이힐러 지음, 이훈상 옮김,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에서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찌 대대로 예의를 닦아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노릇을 함으로써 생민의 윤리와 사물의 법칙이 그래도 불 만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³⁾

조선이 지리적으로는 안남이나 교지와 마찬가지로 중국 밖에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중화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중국 즉 소중화라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움은 자세히 보면 스스로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오랑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화의 문화를 연마하여 그래도 불 만한 점이 있다고 중국인들이 인정해준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타자의 눈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강화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성리학은 화이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성리학을 수용하는 한 화이론을 수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것이다. 조선의 성리학의 매우 교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선비가 주자를 받들어 숭배하는 것은 실로 중국이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받들어 숭배하는 것만을 알았지 경전의 뜻 중에서 의심스러운 것, 따져보아야 하는 것까지도 풀이 바람에 쓸리듯이 부화뇌동하여 한 뜻으로 옹호하려고 하니 생각건대 이것은 일세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⁴⁾

홍대용은 숭배하는 것만 알았지 의심스러운 것, 따져보아야 할 것까지도 옹호만 하려는 세태를 개탄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리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신의 소신과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⁵⁾ 물론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억압적 학문 풍토가 정치적 의도로 증폭

3) 중종실록 권17, 7년 12. 26 병인, 『조선왕조실록』 권 14, (국사편찬위원회, 1986) 633면. 我國家 邇處日域 自中國視之 如安南交趾無異 而中國之人 不鄙夷之 至稱小中華 豈非以世修禮義 君君臣臣 父父子子 民彝物則 猶足可觀故耶

4) 「乾淨錄後語」, 『국역담헌서』 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345면. 이하 원문 면수는 따로 밝히지 않는다. 東儒之崇奉朱子 實非中國之所及 雖然惟知崇奉之爲貴 其於經義之可疑可議 望風雷同 一味掩護 思以箝一世之口焉

5) 숙종이 임석한 자리에서 논어 주를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

된 것임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강화되었다.

오랑캐라고 멸시해 가지 않던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차지한 것은 조선조 유학자들에게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 조선 초기의 사대주의 국시는 강대한 나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이것이 성리학의 교조적 수용 그리고 왜란 때 명나라가 나라를 구해주었다는 생각에서 나온 숭명 의식으로 오랑캐로 대명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강탈한 청나라는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와 같았다.

우리나라는 본디 예의의 나라로 소문이 나서 천하가 소중화라 일컫고 있으며 열성들이 계승하면서 한 마음으로 사대하기를 정성스럽고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랑캐를 섬기며 편안함을 취해 겨우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을 연장해 가고 있으나 조종들에 대해서는 어찌겠으며, 천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찌겠으며, 후세에 대해서는 어찌겠습니까.⁶⁾

조선이 청나라를 섬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랑캐를 섬기는 대가로 그나마 나라를 보존하고 있는 현실이 조종이나 천하 사람 더 나가서는 후세에 결코 떳떳한

다. 이 자리에서 윤희는 주희의 논어 집주를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朝鮮王朝實錄, 肅宗元年五月丁丑, 御書講 尹鑣亦入侍 鑣言論語註不必讀 同知事金錫胄曰 論語註不可舍 鑣曰 異於科儒用工 不必讀 檢討官李夏鑣曰 鑣言甚是) 이에 대하여 당시 승지였던 金萬重이 윤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大文聖人之文 註釋賢人之文 雖似有間 朱子乃後世之所尊崇 尹某之勸上無讀 極可怪也 :白湖全書, 慶北大出版部, 1974, 2149면) 사실 서포는 그의 「서포만필」에서 주희의 주장에 적지 않은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서포가 권위주의적 논리로 윤희를 비판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만 또한 주희의 학설 또는 성리학이 얼마나 교조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金興圭, 『朝鮮後期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53면을 참고)

- 6) 인조실록 권 32, 14년 2. 21 병신, 『실록』 권 34, 624면. 我國素以禮義聞 天下稱之以小中華 而列聖相承 事大一心 恪且勤矣 今乃服事胡虜 偷安僅存 縱延晷刻 其於祖宗何 其於天下何 其於後世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사정이다. 중국은 아예 오랑캐의 발굽 아래 점령을 당하여 자랑스러운 중화의 문물은 사라지고 이단 사설이 행황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 사대부들의 소중화 의식은 변화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비록 동쪽의 오랑캐라고 하지만 주자어류에서 고려의 풍속이 좋다고 찬찬하였다. 고려 때는 오랑캐의 풍속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쪽이나 서쪽 북쪽의 여러 종족들과 비교해본다면 동쪽에는 그나마 교화가 조금씩 이루어졌던 것이다. (...) 또 중국에서 주자서를 구해다가 나라 안에서 가르치니 도학이 점차 밝아졌다. (...) 그리하여 도학이 세상에 크게 밝아졌다. 들으니 중국 사람들은 모두가 양명학을 숭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이 주자의 학문을 숭상하니 '주나라의 예가 노나라에 있는 것' 같다고 할 것이다.⁷⁾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여러 오랑캐 중에서 그래도 가장 풍속이 좋은 오랑캐였다. 이것이 전통적인 소중화 의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중화의 문화가 중국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제는 '주나라의 예가 노나라에 있는 것'과 같다는 논어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나라만이 도학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부심 넘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⁸⁾

그러면 우암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중국을 능가했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중국 천하가 이단사설인 양명학을 숭상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주자의 학문을 숭상한다는 의미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암이 생각하는 중화 도학의 정통인 주자학을 숭상하는 것을

7) 宋子大全 131. 『한국문집총간』 112, (민족문화추진회, 1991), 439면. 我東雖曰東夷高麗之時 朱子語類稱之曰高麗風俗好 高麗之世 夷俗未變 然視諸南西北諸種 則尚有東漸之化矣 (...) 而又得朱子書於中州 以教於國中 自後道學漸明 (...) 則道學大明於世矣 竊聞中州人皆宗陸學 而我東獨宗朱子之學 可謂周禮在魯矣

8) 북벌론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자리한다. 삼지하다시피 북벌론은 민족주의적인 의식에서 주장되거나 추진된 것이 아니다. 삼전도의 수치를 씻자고 하는 것이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춘추의리에 바탕한 대의명분과 일치한 것으로 따라서 북벌은 중화 의식의 수호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벌론은 절대화된 유학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암은 실로 중화문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이 강하게 집착하였으며 그 교조적 해석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⁹⁾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는 우리나라는 본래 기자의 나라이니 기자가 행한 팔조는 모두가 홍범에 근본을 둔 것이다. 그러니 이 큰 법이 행해진 것은 실로 주나라와 같은 때다. 공자가 와서 살려고 했던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니겠는가!¹⁰⁾”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이러한 소중화 의식은 우리가 중국을 능가했다고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제는 중화의 문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전대의 소중화 의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화론은 역설적으로 유학적 명분론에 힘입어 타자의 눈을 통하여 스스로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원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동쪽 오랑캐라고 하는데 이름은 좋지 못하지만 (중화는) (문화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맹자는 ‘순은 동쪽 오랑캐고 문왕은 서쪽 오랑캐’이라고 하였다. 그분들이 성인 현인이라면 우리나라가 추나 노가 아닌 것을 걱정할 것은 아니다. 옛날 칠민은 실로 남쪽 오랑캐의 땅이지만 주자가 그곳에서 나온 이후로 본래 중화의 예악과 문물이 있던 지역이 오히려 양보해야 하게 되었다. 지역적으로 옛날에 오랑캐 땅이었으나 오늘날 중화가 되는 것은 오로지 중화 문화의 가르침에 교화되었느냐 하는 것뿐이다.¹¹⁾

9) 그 좋은 한 예를 예송논쟁에서 볼 수 있다. 현종의 모후인 인선왕후가 죽자 남인은 1년상을 서인인 우암은大功 즉 9월복을 주장하였다. 우암의 주장은 이것은 결국 효종이 대통을 계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장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로 확대 해석될 수 있었다. 우암의 주장은 『周禮』에 근거한 것이다. 이 논쟁은 1년상으로 결정되었지만 결국 현종의 분노를 사 서인들이 실권하는 계기가 되었다.

10) 宋子大全 131. 『문집총간』 112, 438면. 我東本箕子之國 箕子所行八條 皆本於洪範 則大法之行 實與周家同時矣 孔子之欲居 亦豈以是也耶

11) 宋子大全 권 131. 『雜著』, 『문집총간』 112, 438. 면中原人指我東爲東夷 號名雖不雅 亦在作興之如何耳 孟子曰 舜東夷之人也 文王西夷之人也 苟爲聖人賢人 則我東不患不爲鄒魯矣 昔七閩實南夷區藪 而自朱子崛起於此地之後 中華禮樂文物之地 或

잡다한 주변의 민족을 아우르고 때로는 주변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중국에서 한족 중심의 화이론이 민족적 한계를 극복하고 통사적으로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화론적 화이론이다. 맹자가 이상적인 시절의 제왕으로 추송한 순은 동쪽 오랑캐고 문왕은 서쪽 오랑캐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문화적인 화이론이 성립된 뒤에도 중국은 항상 천하의 중심이었으며 중국을 벗어난 중화는 생각할 수 없었다.

우암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중화의 문화가 있는 중국’이라는 중화의 관념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순이나 문왕이 중화 민족이 아니면서도 중화의 문화를 받아들여 성인 현인이 되었다면 지역적으로도 중국을 떠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맹자가 태어난 추나 공자가 태어난 노가 아닌 것을 걱정할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춘추대의에 입각한 탈지역적 중화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 와서는 중국인의 눈을 통하여 인정을 받는 소중화가 아니라 역시 왜곡된 것이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화이론 즉 중국 중심적 사고방식은 북학파에까지도 연장된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왕실이 날로 낮아지고 제후들은 쇠약해지자 오와 초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하고 해치기를 싫어하지 않았다. 춘추는 주나라 책이니 안과 바깥에 대해서 엄격히 한 것이 또한 마땅치 않겠는가. 그러나 가령 공자가 바다에 떠서 구이로 들어와 살았다면 중국법을 써서 구이의 풍속을 변화시키고 주나라 도를 중국 밖에 일으켰을 것이다. 그런즉 안과 밖의 구별과 높이고 물리치는 의리가 다른 역외 춘추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

이 공자가 성인된 까닭이다.¹²⁾

중화의식이 신앙적인 조선 후기의 분위기에서 ‘춘추는 주나라 책이니 안과 바깥에 대해서 엄격히 한 것이 또한 마땅’하다고 하면서 중국 밖에서도 ‘안과 밖의 구별과 높이고 물리치는 의리가 중국과 다른 지역의 춘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역외춘추’도 결국은 중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역외이지만 춘추라는 이름에는 중국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제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안과 밖의 구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코 화이론을 극복했다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며, 논리적으로는 성리학자들의 소중화론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헌이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를 본받아서 오랑캐란 이름을 면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국역담헌집 338면, 又答直齋書)라고 하여 소중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학파의 화이론은 성리학자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발표자가 보기에 그것은 정통 성리학자들이 화이론에서 말하는 ‘중화의 문물’ 중에서 ‘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북학파의 그것은 ‘물’에 주목했다는 것이다.¹³⁾ 문에 대해서는 성리학자들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담헌은 문의 화이론에 대해서 ‘주나라의 예가 노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이 본바탕임을 인정하고 “중국과 비교하면 그 등분이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국역담헌집 338면, 又答直齋書)라고 허심탄회하게 말한다. 사실 담헌을 포함한 북학파에게 있어서 조선의 문이 중국의 문에 뒤떨어지는지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관심 사항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대

12) 洪大容, 『醫山問答』, 『국역담헌서』 I, 491. 孔子周人也 王室日卑 諸侯衰弱 吳楚滑夏 寇賊無厭 春秋者周書也 內外之嚴 不亦宜乎 雖然 使孔子浮于海 居九夷 用夏變夷 興周道於域外 則 內外之分 尊攘之義 自當有域外春秋 此孔子之所以爲聖人也

13) 이에 대하여 김명호는 ‘청조와 청조문물의 분리론에 입각하여 청조문물의 수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고 한 바 있는데(김명호, 『熱河日記研究』, 창작과비평사 1990. 122면) 발표자는 이와 달리 청조의 ‘문’과 ‘물’의 분리로 보는 편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본다.

체적으로 이용후생지술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암의 경우를 가지고 말하자면 연암은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한족의 문화 즉 도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청이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서는 몰래 학문의 종주가 어디 있는지와 당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많고 적음을 살피고는 이에 많은 쪽을 따르고 힘써 종주로 삼았다. 주자를 심철의 반열에 올려 제사하고 천하에 큰소리로 말하기를 “주자의 도는 우리 황실의 가학이다”라고 한 것이다. 드디어 세상에 서 기뻐하며 복종하는 사람이 나오고 거짓으로 세상에 드문 일이라고 하는 자도 나와 이른바 육씨의 학문은 거의 끊어졌다. 아! 저들이 참말로 주자의 학문을 알고 그 바른 것을 얻었겠는가. 천자의 존귀함으로 겉으로 사모하는 척한 것뿐이다. 그 뜻은 중국의 대세를 살피서 미리 차지하여 천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네를 오랑캐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¹⁴⁾

연암은 청이 주자학을 존송하는 것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조선 유학자들과 매우 다르다. 사실 정통 유학자들은 청나라의 성리학 숭배를 긍정적으로 보았다.¹⁵⁾ 이와 달리 연암은 청의 정책이 주자학을 진심으로 숭상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편의를 위하여 대세에 편승한 정략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물음에 대해 ‘주자가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라고 하였는데 청나라 황제도 오랑캐인 금나라와 화친한 송 고종이 춘추대의를 모른다고 배척하고, 진 회가 오랑캐와 화친을 주장한 죄를 성토하였는데 이것은 오랑캐가 스스로 오랑캐를 배척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주자가 여러 책에 주석을 붙였는

14) 『審勢編』 『燕巖集』 14, (경인문화사, 1974년 영인본), 253면. 淸人入主中國 陰察學術宗主之所在 與夫當時趨嚮之衆寡 於是從衆而力主之 陸享朱子於十哲之列 而號於天下曰 朱子之道 卽吾帝室之家學也 遂天下洽然悅服者有之 緣飾希世者有之 所謂陸氏之學 幾乎絕矣 嗚呼 彼豈眞識朱子之學 而得其正也 抑以天子之尊 陽浮慕之 此其意 徒審中國之大勢 而先據之 鉗天下之口 而莫敢號我以夷狄也

15) 노가제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대표적인 척화파인 김상헌의 후손이자 정통 성리학자인 김창협 김창흠 등과 형제인 노가제 김창업은 강희 황제가 공자와 주자를 높이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국역연행록선집IV, (민족문화추진회, 1976), 361면

데 황제도 천하의 선비를 모으고 천하의 책을 징발하여 도서집성과 사고전서를 만들고 “이것이 주자가 처음에 주장한 것이요 고정인 남긴 뜻이다”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연암은 그들이 걸핏하면 주자를 따르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천하 사대부들의 목덜미를 걸터타고 그 멍살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는 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천하 사대부들은 그 어리석은 협박을 받고는 구구하게 번잡한 형식적 학문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¹⁶⁾는 것이다. 성리학자였던 노가재처럼 청의 주자학 숭상을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해내는 것은 놀라운 혜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혜안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청나라가 주자학을 탄압해야 하는가? 도서집성이나 사고전서를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가? 만약 연암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답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자가 보기에 연암이 청의 주자학 존송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이적’을 단순히 민족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문화적 측면에서의 화이론으로 본다면 청의 성리학 존송은 부정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족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족인 주자가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랑캐인 청 황제가 여기 동의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이런 점에서 연암이 청나라의 주자학 존송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청이 오랑캐 왕조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명말청초의 학문적 경향으로 보면 연암이 말한 바와 같이 명나라 말년에 천하의 학자 중에 주자를 으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없고 육상산을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명의 멸망이 양명학 숭상

16) 위의 글, 앞의 책 253-254. 朱子尊中國而攘夷狄 則皇帝嘗著論 而斥宋高宗不識春秋之義 討秦檜主和之罪 朱子集注群書 則皇帝集天下之士 徵海內之書 爲圖書集成四庫全書 率天下而唱之曰 此紫陽之緒言 而考亭之遺旨也 其所以動遵朱子者 非他也 騎天下士大夫之項 扼其咽而撫其背 天下之士大夫 率被其愚脅 區區自泥於儀文節目之中 而莫之能覺也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으며, 청초에도 연암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모기령 같은 사람들이 주자를 함부로 공격하는 분위기였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암은 그와 반대의 말을 한 것이다. 연암이 그런 실정을 몰랐을 리는 없다. 이미 모기령과 같은 사람이 함부로 주자를 공격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연암은 자신의 화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⁸⁾

그렇다면 이처럼 화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에도 북학 즉 청나라에서 배우자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북학파가 주장하는 북학은 철저하게 기술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이론의 극복이 아니라 화이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인 셈이다. 그들이 보기에 청나라가 지배하는 중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났으며 조선은 그 기술(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암은 매우 과학적인 관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로 조선의 가마를 가마도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의 가마를 입에 침이 마르게 예찬한다.¹⁹⁾

이에 대하여 연암이 독서하는 선비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변호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연암이 중국에서 배우자고 주장한 것이 주로 기술 분야라는 사실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는 잘 알지도 못하는 배울 것을 주장하는 연암의 사고방식이다. 연암은 중국의 기술은 무조건 조선에 비하여 크게 발달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 만약 이것이 맞다면 연암은 도학이 아닌

17) 위의 글.

18) 연암은 모기령 등의 주회 공격이 육상산 등의 그것과 달리 울분을 풀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심세편)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에는 그의 반주자주의적인 면모를 감추기 위한 둔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연암의 주자학에 대한 태도는 모순적이다. 반주자주의적인 면모도 있지만 (이동환, 연암사상의 이념적 범주와 반주자주의성, 『실학시대의 사상과 문학』 지식산업사, 2006) 주자학을 자신의 사상적 입지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김명호, 앞의 책, 106면) 특히 만년으로 갈수록 주자학에 대한 경사가 나타난다. (이동환, 연암사상의 한계에 대하여, 앞의 책)

19) 『연암집』 152면.

기술 분야의 중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그리고 이것은 박제가에 이르러 더욱 심해진다.

중국의 활은 너무 투박하고 커서 우스꽝스럽다. 사정거리도 60-70보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활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서 건조하거나 습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은 활을 잘 쏘아 200보까지 맞추나 조금이라도 활을 불에 잘 굽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비가 올 때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²¹⁾

여기에서 말하는 조선의 활은 200보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각궁(角弓)이 분명하다. 박제가는 이것을 나무로 만들어 60-70보 밖에 나가지 않는 중국 활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200보까지 맞출 수 있는 활은 분명 60-70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북학의」의 태도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불에 잘못 구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굽는 기술을 더 발달시키고 비 오는 날에 쓸 수 없다면 그런 날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제가는 이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덜 발달된 중국 활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것은 중국의 기술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발표자가 말하는 기술적 화이론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한다. 이 정도면 그의 맹목적인 중국에 대한 숭모를 唐病이라고 비난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경사는 마침내 언어까지도 중국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게 접경하고 있고 글자의 소리가 중국의 그것과

20) 물론 당시의 중국 기술이 전반적으로 조선에 비하여 발달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발표자가 문제삼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까지도 소리 높여 배울 것을 주장하는 연암의 편향적인 태도 바로 그것이다.

21) 안대회 역, 『북학의』 (돌베개, 2003) 123면

대략 같다. 그러므로 온 나라 사람이 본래 사용하는 말을 버린다고 해도 불가할 이치는 없다. 이렇게 본래 사용하는 말을 버린 다음에야 오랑캐라는 모욕적인 글자로 불리는 신세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수천 리 동국이 저절로 주, 한, 당, 송의 풍기가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²²⁾

언어까지도 중국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중국어를 쓰자고 하는 것은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것은 박제가만의 생각이 아니다. 민족주의를 그의 사상의 한 범주로 정립받고 있는 박지원에게서도 이와 같은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²³⁾ 이것은 연암을 포함한 북학파가 얼마나 중국 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학파는 성리학자들의 화이론과는 다른 기술적 측면에서 화이론을 가지고 스스로를 후진국으로 자리 매김한 것이다.

북학파의 중국 중심적 사고는 담헌보다는 연암이, 연암보다는 초정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암이라는 한 개인의 경우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리학에 관심하고 모화주의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물론 이것은 연암의 문명 선진화에 대한 열정으로²⁴⁾ 또는 진보와 발전의 논리로 이해할 수는 있다.²⁵⁾ 그러나 민족에 몰입하다 민족을 등지는²⁶⁾ 모순된 현상은 도학적이든 기술적이든 중국 중심적인 화이론을 견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4

조선 후기의 선비들은 정통 성리학자건 북학파 실학자이든 이용후생에 필요한 청의 문물 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표면적으로 배척하

22) 앞의 책, 107면

23) 이동환, 연암 사상의 이념적 범주와 반주자주의성. 위의 책

24) 이동환, 연암사상의 한계에 대하여. 위의 책.

25) 宋載邵, 朴齊家の文學觀, 『한국의 漢文學』 권2, (민음사, 1991), 722면

26) 이동환, 주 23)의 글

는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는가의 차이 뿐이다. 이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스스로를 보는 시각에서 공통적이었기 때문이다.

楚亭의 생각은 일관된 하나의 원리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데 그것은 진보와 발전의 논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의 이론은 대부분 淸나라를 모델로 하고 있다. 淸나라의 발달한 기술과 文物制度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도 淸나라와 같은 文明國이 되자는 것이 그의 주된 이론인데 여기에는 중국 역사상 淸나라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는 의식이 밑받침되어 있다.²⁷⁾

이 중에서 淸을 미국으로 바꾸어 조선 후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말하는 것으로 바꾸어본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조선 후기 사대부들과 다름없이 여전히 사고의 중심을 밖에다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는 뒤떨어져 있으며 하루 빨리 미국과 같은 문명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미국의 것을 공용화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화이론의 꼬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논증이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는 점을 발표자도 스스로 인정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찾아내어 논문으로 정리할 것을 기약한다.

- 핵심어 : 화이론, 성리학, 중국 중심, 소중화(론), 북학과

27) 송재소, 앞의 글

<Abstract>

The Perspective from which the Gentry of Chosun looks at Themselves

Kim Sang-jo

The Chosun Dynasty had adopted New-Confucianism as a national ideology since its foundation. While taking root, it created conflicts with Chosun's unique and traditional system. The gentry initially refused to blindly conform to the style of China or New-Confucianism. As time passed by, however, they began to consider themselves barbarians and slowly tilt toward China. Finally, they received an evaluation of Small China, which means, from the China's perspective, they were different from neighboring barbarian countries.

The deeper the understanding of New-Confucianism, the stronger the influence of Whayee Theory (華夷論, meaning "respect China and repel neighboring barbarian countries") immanent in New-Confucianism. When the Ching Dynasty ruled China, the gentry of Chosun took pride in cherishing their own culture of Chinese title instead of Small China approved by China.

Whayee Theory, China-centered thought, was extended to Bukhakpa. But it had something different from that of orthodox New-Confucianists. That is, while New-Confucianists accepted Whayee Theory from a metaphysical angle, realistic scholars of Bukhakpa rated Chinese skills the best and advocated learning them, focusing on a technical aspect

How about today's Korea? The gentry of Chosun considered themselves a barbarian and look at themselves from a China-centered perspective. By the same token,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Korea's

elite is looking at themselves with a US-centered mind.

- Key Words: Whyee Theory (華夷論, meaning "respect China and repel neighboring barbarian countries"), New-Confucianism, China-centered mind, Small China (theory), Bukhakpa